

중국 사회변동 연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이론틀의 재고찰:

산동성 포도주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호**

본 논문은 중국 농촌의 기업형 농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사회 변동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사회주의 및 탈사회주의라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농촌의 소유관계 및 생산양식과 결합하는 양태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자가 조사한 산동성 옌타이(烟台) 지역의 포도주 회사들은 포도 생산을 위해 ‘승조반포(承租反包)’라는 중국 특유의 생산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 계약 방식에는 사회주의 시기 집단농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정적 기억으로 인한 반작용과, 1980년대 초반 실시되었던 ‘농가생산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에 근거한 합리성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촌락의 집체적 토지 소유권에 기반하여 촌락 집체는 기업과의 토지 임대 및 생산 계약의 주체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치적 의사 결정과 평등성의 원칙이 부분적으로 유지되었다. 중국 농촌에서 기업형 농업의 자본주의적 확장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시대에 대한 경험 및 기억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이다. 산동성 포도주 산업의 개황에 대한 내용은 필자의 다른 글(김기호 2014)에 부분적으로 소개된 바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의 바탕이 된 현지조사는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웨너그렌재단(Wenner-Gren Foundation for Anthropological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의 Division of the Social Sciences를 통한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유익하고 세심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시카고 대학교 인류학 박사

새로운 합리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회주의적 유산을 선택적으로 재조합하는 시대적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

〈주요개념〉: 신자유주의, 기업형 농업, 승조반포, 포도주, 농가생산도급제
임제, 중국, 촌락

1. 서론

2000년대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았으며, 신자유주의 체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Harvey 2007: 22; Ganti 2014: 90). 중국을 연구하는 많은 인류학자들 역시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 이론틀로 분석하고 있다(Yan 2003; Anagnost 2004; Rofel 2007; Zhang and Ong 2008). 이들은 사회주의의 집단적 체제가 붕괴된 이후 공적 영역에서 나타난 도덕적 공백이 개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으로 채워졌다고 진단하면서 사유화(privatization)와 개인주의화(individualization) 현상을 통해 중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옌(Yan 2003)과 아낙노스(Anagnost 2004)는 교육과 노동 시장에 만연한 ‘소양[素质]’ 담론이 개인의 상품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자본 축적을 위한 노동력 제공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장과 옹(Zhang and Ong 2008)은 중국의 사유화 정책이 신자유주의적 통치 전략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이 경제 영역에 한정되어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권위적 지배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한다. 하비(Harvey 2007) 역시 중앙집권적 통치가 자본 권력과 결합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을 ‘중국 특색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로 묘사하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 정치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빚나가면서 사유화와 개인주의화의 현상으로 중국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서구 학계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로 인해 개인들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에 함몰된 채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논리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인들은 탈정치화된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새로운 소비 행위와 사고 활동을 통해 부의 과시와 신분 상승을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Zhang and Ong 2008). 또한 파편화된 개인들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채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국가의 통제에 대항하는 상향식(bottom-up) 저항의 동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Yan 2009a, 2009b). 옌(Yan 2009b)은 중국 농촌의 경우에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촌 간부 중심의 위계 질서를 허물었으며 개인과 가족 단위의 물질적인 이익 추구로 인해 친족이나 이웃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변화 속에서 사회주의의 과거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갈구하는 노스탤지어(nostalgia)의 대상으로 묘사되곤 한다(Yang 2003; Zhang 2006; Davies 2007; Farquhar and Zhang 2012). 즉,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상실감을 느끼게 된 중국인들이 과거의 사회주의에 대해 국가 통제와 물질적 빈곤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들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정(情)과 유대감이 강했던 시대로 낭만화하여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화혁명 시대에 하방(下放)을 경험했던 지청(知青) 세대의 회고적 네러티브, 인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했던 레이펑(雷锋) 정신의 복고적 고취 현상, 798 예술구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기억의 예술적 재창조 작업 등이 언급된다.

반면에 중국 사회에 대해 신자유주의의 분석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과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킵니스(Kipnis 2006)는 ‘소양[素质]’ 담론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면서 신자유주의 개념의 일반화로 인해 중국의 정치경제적 복잡성이 간과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피에크(Pieke 2009)도 신자유주의가 서구 사회에서처럼 시장 확대와 국가

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제도적인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통제가 강하게 남아 있는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신자유주의의 분석 개념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피에크는 중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지도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인민에 대한 통치 방식은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사회주의(neo-socialism)’라는 개념이 더 유용하다고 제시한다. 한편 노니니(Nonini 2008)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실제로 자본 축적의 논리와 사회주의적 가치 사이의 변증법적 작용에 의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화의 범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한다. 노니니는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하층민의 불만과 저항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산당 내에 존재하는 사회주의적 온정주의와 시장 자유주의적 입장 사이의 긴장과 갈등 관계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국 사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해석들이 주로 도시 엘리트 집단이나 중산층 소비자들에 대한 민족지적 연구 자료들에 기반하고 비판한다(íbid.: 171-172).

본 논문은 중국 농촌의 기업형 농업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사회 변동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이론들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사회주의 및 탈(脫)사회주의라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선상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농촌의 소유관계, 생산양식, 사회조직 등과 결합하는 양태를 분석하고 있다. 앞서 피에크와 노니니가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비판한 것에 동의하면서도, 단지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넘어 사회주의적 가치가 어떻게 취사선택되어 자본주의 요소들과 재조합(recombination)하는지, 또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지양하게 되면서 형성되는 당위성과 합리성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특히 기업형 농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관리자와 촌 간부, 그리고 촌민들의 기억과 경험, 관습과 태도에 주목함으로써, 중국에서 시장경제적인 변화가 사회주의적 과거와 결부된 채 변용되고 타협되는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도시 중산층이나 노동자들이 아닌 농촌과 농민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국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집체 소유와 사회

적 관계, 집단적 기억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중국의 포도주 업체들이 산동성 지역에서 기업형 포도 생산 단지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포도주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정부의 지원 하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도농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형 농업의 도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 기술의 보급, 농가 소득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 중 포도주 회사들은 포도주라는 고부가가치의 상품 생산을 통해 기업형 농업을 선도할 이른바 ‘룽터우(龙头)’ 기업으로 인정받았고 농지 계약이나 세금 등에 있어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다(김기호 2014: 159-160). 이 논문에서는 포도주 회사가 포도 재배를 위해 농지를 확보하고 농민들과 생산 계약을 맺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포도주 회사의 기업형 농업이 집체적 토지 소유라는 사회주의적 유산 및 농가생산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라는 탈사회주의적 제도와 결합하면서 기업 운영의 효율성이 제약 받고 농민들의 관습적 당위성과 타협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포도주 회사와 농민들 사이의 생산 계약이 신자유주의적 기제만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중국 농촌을 관통하는 역사적 경험 및 기억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인류학적 연구들이 개혁개방 이후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 치우쳐 있는 반면에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주로 종교, 의례, 친족, 가족 등 전통적인 연구 주제들에 집중되어 있다(Jing 1998; Mueggler 2001; Yang 2000, 2004; Feuchtwang 2010). 인류학에서 중국 농촌은 여전히 ‘고유한(authentic)’ 문화를 지닌 ‘타자(otherness)’로 인식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선물 교환’(Yang 1994), ‘사원 건설’(Jing 1998; Yang 2000; Feuchtwang 2010), 혹은 ‘종이돈을 태우는 의례’(Chu 2010; Blake 2011) 등의 문화적 행위들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심지어 탈사회주의 농촌 사회의 소유관계에 대한 논문 모음집인 *The Post-socialist Agrarian Question: Property Relations and the Rural Condition*에서도 중국 관련 논문은 사회

주의 공동체의 붕괴 이후 나타나는 가족 및 친족 관계의 회복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원을 설명하고 있다(Brandstätter 2003).¹⁾ 본 논문은 중국 농촌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성과들을 접목하고(Oi and Walder 1999; Eyferth, Ho, and Vermeer 2004; Swinnen and Rozelle 2006), 집단농장 해체 이후 농업과 토지소유, 촌락 조직 등에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변화들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촌민들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오고 있으며 농업의 생산 방식 및 토지 제도와 관련된 국가 정책들을 통해 시대적 변화들을 겪어 왔다. 기업형 농업이 도입되고 있는 지금, 중국 농촌 연구에서 농민들의 생계 수단인 농업과 토지에 대한 인류학적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약 18개월간 산둥성 옌타이(烟台) 지역에서 실시한 현지연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논문조사에 앞서 2009년 여름에 이미 동일 지역에서 3개월간 논문 예비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년에 걸친 지역 경제의 변화 속에서 포도주 산업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주된 연구 대상은 옌타이 지역에서 큰 규모에 속하는 ‘피닉스밸리’²⁾라는 포도주 회사의 포도 생산 기지이며, 연구 사례의 보편성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인접 지역에 위치한 중소형 포도 회사들의 생산 단지들도 추가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포도 생산 지역에 있는 마을의 식당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면접 대상자들을 인터뷰하고, 농민들의 일상 속에서 식사, 술자리, 마작 등의 사교 활동을 함께 하면서 참여관찰을 실시했다. 특히 연구자는 농민들의 포도 재배 작업을 돕기도 했는데 이는 농민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 생산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 노동 관리 및 감독에 있어서 관리자와 농민들 사이의 쟁점들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옌타이 지역의

1) 연구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편집자인 Chris Hann 박사에게 이메일로 질의하였는데, 당시 중국 농촌의 경제적 소유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을 찾기가 어려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연구대상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포도주 회사, 관리인, 촌락 이름, 촌민들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음을 밝힌다. 단, 공적 인물인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은 실명으로 표기한다.

지방 공무원, 포도주 회사의 간부 및 중간 관리자, 생산 지역의 촌 서기들까지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들을 면접 조사함으로써 농지 사용 및 포도 생산 계약에 대한 다층적인 입장들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기간 중에 베이징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중국농업과학원 교수, 포도주 잡지 기자, 포도주 유통업자, 소물리에 등 포도주 전문가들을 인터뷰하여 산둥 지역의 포도주 산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외부자적 관점들을 파악했다.

2. 중국 포도주 산업의 개괄

중국 최초의 근대식 와이너리는 1892년 남양(南洋) 화교 장비스(张弼士)가 산둥성 엔타이에 설립한 ‘장위(张裕)’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장위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탈에 맞선 민족주의 자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황제의 제가와 이홍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Godley 1986: 383-387). 장비스는 유럽에서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수입해 재배했고 외국인 전문가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장위의 와인은 1915년 샌프란시스코의 파나마-퍼시픽 박람회에서 수상을 할 정도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³⁾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경공업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소련, 헝가리, 불가리아 등으로부터 포도 품종들을 수입하여 포도주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포도주 산업은 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Jenster and Cheng 2008). 특히 1950~60년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격변기를 겪으면서 식량 부족으로 인해 과수 생산에 대한 제약이 가해졌고, 1970년대까지 포도주는 중국의 일반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의 포도주 산업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육성

3) <http://www.changyu.com.cn/english/history>

하는 수단으로서 포도주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장위(张裕)는 프랑스 카스텔社와, 다이너스티(王朝)는 레미마틴社와 각각 합작 사업을 시작했고, 국영기업인 종량(中粮)은 ‘창청(长城)’이라는 포도주 회사를 설립했다(Kjellegren 2004). 이에 힘입어 1990년대 포도주 회사들의 포도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1999년 37억 위안이었던 포도주 판매도 2008년에는 약 200억 위안으로 급격히 증가했다(Rozelle, Sumner, and Huang 2006). 2010년 이후 중국 포도주 산업은 생산량에 있어서 호주, 칠레를 앞서며 세계 6위 규모로 성장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만찬이나 연회에서 주로 바이지우(白酒)나 맥주를 마셨지만, 2000년대 이후 포도주는 점차 명절 선물이나 손님 대접을 위한 술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특히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포도주 소비가 도시 중산층의 고급문화로 재현되면서 포도주는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 더욱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서 포도주 산업은 지역경제에 있어서 ‘신농촌건설(新农村建设)’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다(김인 2006). 즉, ‘자본 투자 유치(招商引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 정부는 포도주 회사 측에 토지 계약이나 세금 등에 있어서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유럽풍의 샤토(châteaux) 건물과 광활한 포도원의 이국적인 풍경은 도시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며 지역의 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도주 산업은 중국의 농업 효율성을 촉진시키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 농촌에서는 1980년대 초반 집단 농장이 해체되면서 ‘농가생산도급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가 도입되어 각 농가의 가구원 수에 따라 토지 사용권이 균등하게 분배되었다.⁴⁾ 이 제도에 따라 각 농가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곡물 할당량을 제외한 잉여생산물에 대해 사적 소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까지 일시적으로 농

4) 탈사회주의 시기 구조론 및 동유럽 국가들의 경우 집단 농장의 해체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 시기 이전의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경우와 차이를 보여준다(Humphrey 1998; Hann 2003; Verdery 2004).



〈그림 1〉 산둥성의 한 와이너리 본관



〈그림 2〉 화려한 외관의 부속 건물

업 생산성이 증가했다(Yu and Zhao 2009: 638-639).⁵⁾ 하지만 1990년대

5) 1983년 ‘농가생산도급책임제’는 중국의 거의 모든 농촌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애초에는 5년 단위로 촌민들의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이 맺어졌지만, 1984년에 15년으로 연장되었고 정부에 대한 곡물 공급 할당량도 폐지되었다. 이후 토지 사용권의 불안정성이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1993년 정부는 토지 사용권으로 30년으로 고정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토지 사용 계약이 10~15년 단위로 이루어졌고 촌민들 사이의 토지 사용권 재조정도 발생하곤 했다(Kung and Liu 1997: 54). 1998년이 되어서야 ‘토지관리법’이 개정되어 30년 토지 사용권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Ho and Lin 2003: 690). 대부분의 경우 30년 토지 사용권은 1990년대 말에 시작하여 2020년 말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Zhu and Prosterman 2007: 8), 그 시효가 끝나더라도 토지사용권이 다시 연장되어 반영구적인 사용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Ho 2001: 418).

들어 중국의 농업 생산성은 정체되기 시작했고, 토지 사용권의 균등 분배 원칙은 토지의 파편화를 초래하여 생계형 농업을 넘어 산업형 농업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OECD 2005: 480-48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 농업의 상업화, 전문화, 표준화, 규모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김수한 2012: 94-97), 포도주 회사와 같은 농업 기업이 토지의 통합과 생산효율성 증대를 주도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산동성은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중국 포도주 생산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중국 포도주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그 중 엔타이는 ‘국제 포도주 도시(国际葡萄酒城)’로 지정되어 150여 개 포도주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다. 엔타이 지방 정부는 ‘포도주국(局)’이라는 부처를 신설하여 전담 공무원들이 지역의 포도주 브랜드 홍보와 기술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홍보에 따르면 산동성은 프랑스의 보르도, 미국의 나파밸리 등과 위도상으로 동일 선상에 위치하고 보하이(渤海) 연안의 해양성 기후로 인해 포도 재배에 적합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엔타이에서는 2007년부터 매년 국제 포도주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위는 엔타이에 60억 위안(한화 약 1조 5백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국제 교역센터, 빌라형 주거지, 호텔, 스파 등 관광시설을 갖춘 ‘포도주 국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김기호 2014: 157).

이러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인터뷰한 중국 포도주 전문가들은 중국 포도주의 품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의 포도주 시장은 장위, 창칭, 다이너스티 등 국영 기업들에 의해 독점되어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고급 포도주들의 가격이 품질에 비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Food & Wine』이라는 포도주 전문 잡지의 기자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이 아직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 회사들이 품질 향상보다는 브랜드 마케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선물이나 손님 접대를 위해 주로 고가의 국내 브랜드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포도주의 고가 브랜드 제품들이 종종

칠레나 호주 등 외국에서 수입된 포도주와 혼합하여 중국산으로 둔갑한다는 것은 업계 내의 ‘알려진 비밀’이라고 한다. 산둥성에서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 중인 벨기에 출신 화교 사업가는 포도주 품평 대회에서 중국 업체들이 수입 와인과 혼합한 제품으로 수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소문’과 관련하여 옌타이시(市)의 포도주국(局) 부국장에게 사실 여부를 묻자, “중국에는 아직 포도주의 생산 국가를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중국 포도주 산업은 아직 초보적인 발전 단계에 있다. 프랑스의 AOC처럼 신뢰할 만한 등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처럼 중국 포도주 산업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시장 구조와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중국 포도주의 품질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포도주는 근대성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포도주 산업의 원대한 발전 계획에는 서구에서 고급문화로 여겨지는 포도주를 생산해 냄으로써 단기간 내에 글로벌 수준의 발전 궤도에 진입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Kjellgren 2004). 연구자가 방문했던 한 포도주 회사의 벽에 걸린 “인민들에게 세계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게 하라!(让人民品尝世界最好的葡萄酒)”라는 구호에는 세계적 수준의 발전상과 비교하여 ‘뒤늦음(lateness)’, ‘뒤처짐(lagging behind)’, ‘후진성(backwardness)’에 대한 조급함과 절박함이 드러나 있다(Zhang 2006). 세계적 수준의 포도주 생산에 대한 열망과 중국의 포도주 품질에 대한 불만족 사이의 간극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감은 현재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토지 임대 계약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피닉스밸리’ 와이너리는 옌타이 시내에서 서쪽으로 9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피닉스밸리는 이 지역의 18개 마을로부터

약 12km²의 농지를 임대하고 2,000여 농가들과 생산 계약을 맺어 대규모 포도 생산 기지를 건설했다. 피닉스밸리에는 포도 생산 기지뿐만 아니라 유럽 건축 양식의 와이너리 건물, 5성급 호텔, 골프 코스, 테니스 코트, 수영장 등 위락 시설이 갖춰져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피닉스밸리는 국영 포도주 회사에서 설립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다른 포도주 회사들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줄이고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고급 포도주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피닉스밸리가 들어서기 전에 이 지역의 농민들은 윤작을 통해 소규모 밭농사를 지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옥수수, 수수, 땅콩 등을 경작하고 가을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는 주식인 밀을 경작하여 식량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시장에 판매하였다. 일부 관개(灌溉) 상황이 좋은 지역에서는 사과, 복숭아, 앵두 등 과수 농업을 하는 농민들도 있었는데 과수 농업이 일반 밭농사에 비해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포도 생산 단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 성향을 나타냈다. 기업 농업의 도입 이전 포도주 회사들은 개별 농민들이 재배한 포도를 구매했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포도 품질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저가 포도주 제조에 사용되었다.

중국의 다른 농촌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 지역의 촌락들도 급격한 노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30대 청년들은 대부분 인근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연구 지역의 촌민들은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중 다수의 40대와 50대 초중반 남성들은 마을에서 가까운 공사장이나 공장에서 임금 노동에 종사했고, 농사일은 여성이 전담하는 가운데 남편이 여유 시간이 생길 때 보조하기도 한다. 남성들이 50대 중반을 넘어서면 외부의 임금 노동에 체력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며 촌락에서 농업에 전념하여 상품 작물 재배에 주력한다. 60대 후반이 넘으면 상품 작물 재배는 어려워지지만 개인적인 체력에 따라 70대까지도 간단한 밭농사를 돕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닉스밸리와 계약농도 대부분 40~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60대 촌민들이 소규모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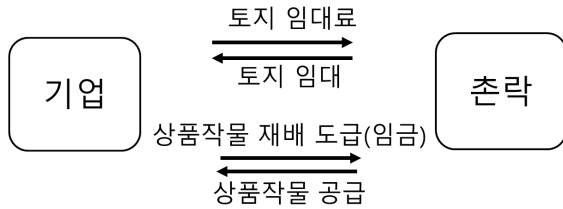
연구자는 피닉스밸리와 계약을 맺은 4개의 촌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각각의 마을이 가지는 특수성을 배제한 일반적인 계약 상황을 도출하였다. 피닉스밸리와 촌락의 계약은 토지 임대와 상품작물 생산을 위한 이중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피닉스밸리는 촌락으로부터 포도 생산을 위한 토지를 임차하고, 다시 이 토지를 촌민들에게 분할하여 포도 생산을 위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토지 임대 계약은 약 2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고 생산 도급 계약은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된다. 이러한 계약을 중국에서는 ‘승조반포(承租反包)’ 모델이라고 하며, 영어권 경제학자들은 ‘역(逆) 계약’을 통한 재임대(reverse rent through inverse contract)’로 번역하기도 한다. 승조반포 모델은 1980년대 초반 집단농장이 해체되면서 촌민들에게 토지 사용권이 분배되었으나 그 소유권은 여전히 촌 단위에 집체적으로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중국적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⁶⁾ 촌락의 집체적 토지 소유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승조반포 모델은 산동의 포도주 산업뿐만 아니라 윈난의 커피, 녹차 생산, 허난의 아스파라거스 생산 등 중국의 기업형 농업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다.⁷⁾

승조반포 모델은 <그림 3>에서 보듯이 기업이 촌락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계약과 촌민들이 포도를 생산하여 기업에 공급하고 임금을 받는 생산 도급 계약의 이중의 중첩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계수단인 농지를 상실한 촌민들의 경제적 보상을 위해 기업이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촌민들과 상품작물의 생산 계약을 맺는 것이다. 재배 계약을 맺은 촌민들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물 전부를 기업에 판매해야 하고 기업은 촌민들로부터 합의된 가격에 농작물을

6) 장과 도날드슨(Zhang and Donaldson 2008)은 승조반포 모델을 ‘중국 특색의 농업 자본주의(agrarian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생산 방식은 촌락의 집체적 토지 소유로 인해 촌민들의 프롤레타리아 계층화를 방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7) 연구자가 방문한 몇몇 포도주 회사들은 촌락과의 계약이 필요 없는 황무지(荒地)를 개간하여 외지에서 값싼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포도 생산 단지를 직접 경영하기도 했는데, 이 방식은 황무지의 토질이 좋지 않고 외지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3〉 기업과 촌락간의 ‘승조반포(承租反包)’ 계약

구매하는 쌍방의 의무를 지닌다. 승조반포 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농업 경영의 규모를 확대하고 안정된 상품작물의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고, 촌민들도 집체적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장호준 2011: 571-572). 연구자가 처음 이 지역의 공무원들과 피닉스밸리의 관리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은 승조반포 제도가 촌민들에게 토지 임대 소득과 포도 재배 계약을 통한 임금 소득을 가져다 준다며 기업과 촌민들 ‘모두에게 이익(双赢)’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99년 피닉스밸리는 각 마을의 촌 위원회와 토지 임대 계약을 맺어 포도 재배를 위한 농지를 확보하였다. 토지 임대료는 각 마을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1999년에 1무(亩)⁸⁾ 당 400위안(元)에서 시작하여 3년에 30 위안씩 인상되어 2014년 조사 당시에는 550위안이 지급되었다. 포도주 회사에 의한 토지 임대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조사했던 대부분의 마을들에서 촌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 이상 임금 노동에 종사하기 어렵고 농업에 생계를 의존해야 하는 50대 이상의 촌민들이 더 강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고 한다. 연구자가 만난 60대 초반의 노부부는 “토지 임대 계약에 완강하게 반대했으나 촌민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들은 국가의 사회보장이 약화되고 식품 가격은 점차 상승하는 상황에서 농지마저 상실하게 된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닉스밸리와 재배 계약을 맺고 있는 50대 촌민들도 불만이 적지

8) 1무(亩)=666.67㎡

않았다. 토지 임대 계약이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10여 년 후 자신들이 노쇠해서 재배 계약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 하게 될 경우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정부는 촌민들에 대한 “선전 공작” 혹은 “사상 공작”으로 불리는 설득 및 회유 작업에 착수했고 촌 서기들도 지방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A마을의 당시 촌서기는 여러 차례 촌락 회의를 소집하여 “포도주 회사와 계약을 수용해야 정부로부터 저수지 등 관개시설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촌민들을 설득했다. B마을의 40대 중반의 리우씨는 촌 위원회로부터 7무의 농지를 임차하여 사과 묘목을 심어 놓았는데, 피닉스밸리가 제시한 사과 묘목 1무당 5,000위안의 보상금에 불만을 품고 토지 임대료에 강하게 반대했었다. 하지만 지방 정부 공무원들과 촌 서기가 수차례 자택으로 찾아와 “다른 촌민들은 다 찬성하기로 했는데 당신만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압박해 오자 노후에 촌 위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로 혜택 등에 있어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두려워 결국 찬성하게 되었다고 털어 놓았다.⁹⁾

토지 임대 계약 당시의 상황에 대한 촌민들의 기억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많은 촌민들은 지방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불평등한 토지 임대 계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촌 간부들은 당시에 촌민들 사이의 토지 임대료가 1무당 100위안 이하였고 농작물 재배를 통한 수익도 1무당 300위안 이하였기 때문에 피닉스밸리에서 제시한 1무당 400위안의 토지 임대료는 촌민들 입장에서 좋은 조건이었다고 반박한다. 40대 중반인 순씨 부부는 피닉스밸리와 40무의 재배 계약을 맺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 농업이 촌락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들은 촌민들이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老思想)’에 젖어있다고 비판하면서 당시에 토지 임대료에 찬성했던 촌민들이 최근 토지 가치가 상승하자 이제 와서 후회하는 것뿐이라

9) 1986년 『토지관리법』에 의해 촌락의 토지는 촌 농민집체가 소유, 관리한다고 규정해 놓았으나, ‘집체’, ‘소유’ 등의 개념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지방 정부에 의한 촌민들의 토지 소유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Guo 2001; Ho 2001; Wang 2005).

고 지적했다. 최근 이 지역의 사과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과수 농업을 통한 수익이 증대되었고 토지 임대료도 함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토지 임대에 대해 불평을 했던 몇몇 촌민들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면서 사실 토지 임대 당시에는 자신들도 찬성했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요컨대 기업형 농업을 위한 토지 임대 과정에서 노년층 위주의 다수 촌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대규모 토지 임대가 가능해졌다. 설사 촌민들의 동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장기 토지 임대 계약에는 지역의 경제적 변화에 따른 토지 사용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촌민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층 촌민들의 토지 사용권이 기업과의 재배 계약을 감당할 수 있는 중년층 촌민들에 의해 전유되어 부분적으로 촌락의 토지 사용에 불평등한 구조가 초래되었다.

4. 포도의 도급 생산 계약

촌락 집체로부터 토지를 임대한 피닉스밸리는 포도 생산을 위해 촌민들과 도급 생산 계약을 맺고 있다. 특이한 점은 피닉스밸리와 개별 농가들의 재배 계약이 촌락 집체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촌락의 토지를 어떻게 구획하고 누가 어떤 토지를 경작할 것인지를 기업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촌락 집체가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토지는 촌락의 자연 경계, 경작 관습, 촌민들의 필요에 따라 10무부터 100무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획되었고, 계약 재배를 원하는 촌민들이 모여서 추침(抓阄)을 통해 각 토지 단위의 계약자와 탈락자를 정했다. 1980년대 초반 ‘농가생산도급책임제’를 통해 토지 사용권을 분배했을 때처럼 추침을 통한 평등성 원칙이 부분적으로나마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후에 촌민들끼리 재배 계약에 대한 권리를 서로 교환, 양도하는 것도 회사의 승인 없이 촌락 집체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촌락으로부터 토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촌민들에게 도급 계약

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촌민들과의 도급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외부에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계약농이 수확한 포도를 외부 업자에게 몰래 판매하는 등 계약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농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다른 촌민들 중 한 명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렇듯 승조반포 모델은 촌락 집체의 도급 권 분배 및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자치적이고 평등적인 원칙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초에 의도했던 기업형 농업의 규모화 효과나 경영 효율성은 상당 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¹⁰⁾

피닉스밸리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회사는 계약농에게 1무당 500kg의 포도 생산량 기준으로 1,000위안의 기본 관리비를 지급한다. 500kg이 초과되는 생산량에 대해서는 20%인 100kg까지 1kg당 2위안이 추가된다. 생산량이 500kg에 도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1kg당 2위안을 삭감하는데 대부분의 계약농들이 500kg을 초과 달성한다고 한다. 20%의 제한을 두는 것은 포도 생산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포도의 전체적인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포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피닉스밸리는 포도의 당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당도의 기준은 포도 품종마다 다른데, 까베르네쇼비뇽을 기준으로 할 때 19°Bx¹¹⁾가 최소 요구 당도이며 1°Bx가 높아질 때마다 1kg당 0.4위안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최소 요구 당도에서 1°Bx가 낮아질 때마다 1kg당 0.2위안이 기본 관리비에서 줄어든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10무의 계약농이 1무당 600kg의 포도를 생산하고 포도 당도가 20°Bx를 기록했다면, 기본 관리비 10,000위안과 초과 생산량에 대한 2,000위안의 가산금(100kg×10무×2위안), 초과 당도에 대한 인센티브

10) 포도주 기업의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촌민들의 대응과 저항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1) 브릭스(Brix, 단위 °Bx)는 당의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용액 100그램에 1그램의 당이 있으면 1°Bx가 된다. 포도주 생산에서 포도의 당도는 알코올 도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하데, 포도의 당도가 부족할 경우 인공적으로 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포도주의 품질이 저하된다. 연구자가 미국에서 만난 포도주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까베르네쇼비뇽의 당도가 24~25°Bx 정도에 도달해야 수확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고급 포도주를 표방하는 피닉스밸리의 포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2,400위안(600kg×10무×0.4위안)이 더해져서 14,400위안의 연간 수익을 얻게 된다. 포도 재배에 필요한 묘목, 비료, 농약 및 기술적 지원은 피닉스밸리에서 제공하지만, 가지치기나 포도 수확 등 농번기에 추가로 필요한 노동력에 대한 비용은 계약농이 지불해야 한다. 부부 두 명이 20무의 계약 재배를 할 경우 추가 노동 비용을 제외한 연간 순수입은 대략 15,000~20,000위안에 이른다.¹²⁾

이와 같은 피닉스밸리의 계약 조건은 연구자가 조사한 다른 세 곳의 포도주 회사들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추첨을 통한 계약 농지 분배나 생산량과 당도에 따른 관리비 차등 지급 등에 있어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예컨대, 인근의 제이드밸리 포도 생산 단지에서는 1무당 750kg 기준으로 1,000위안의 관리비를 지급하고 1kg 초과 생산량에 대해 1.4위안을 추가하고, 1kg 부족분에 대해 2.8위안을 삭감한다. 제이드밸리 역시 20%의 초과 생산량 제한을 두고 있으며 까베르네쇼비농 경우 당도 17°Bx 기준으로 1°Bx 초과 시 1kg당 0.6위안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피닉스밸리의 생산량 기준이 1무당 500kg으로 250kg 더 적다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품질의 포도 생산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포도주 기업들은 왜 촌민들을 임노동자로 고용하지 않고 이렇게 복잡한 계약을 통해 포도를 생산하는 것일까? 이는 미국, 호주, 칠레 등 신흥 포도주 생산 국가들의 포도주 기업들이 대부분 관리인과 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중국 포도주 산업의 특색을 알기 위해 중요한 질문이다. 연구자가 면담했던 중국 농업과학원의 왕중위에(王忠跃) 교수¹³⁾는 중국 포도주 기업의 계약 농업 방식이 사실은 계약농들 사이의 재배 기술 차이로 인해 포도의 균질성이

12)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 중국 농촌의 1인당 연간 평균 소득은 9,892위안이었다(중국통계청). 이 통계는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의 소득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순수 농업을 통한 평균 소득은 농촌 인구 전체의 평균 소득보다 더 낮게 나타날 것이다.

13) 왕중위에 교수는 중국 정부의 농업부와 월드뱅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GAP(Good Agriculture Practice)농업 증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산동성의 포도 생산에 있어서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면서 포도의 상품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떨어지고 노동 관리의 공백이 발생해서 포도의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만난 포도주 회사의 관리자와 촌민들 모두 계약 재배 방식이 ‘중국의 현실(国情)’에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피닉스밸리의 관리인들에게 왜 계약 재배의 방식을 채택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그들의 대답은 포도 생산 단지가 ‘너무 커서’ 촌민들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사실 사회주의 시대의 집단 농장 이후 중국 농촌에서 대규모 농업 생산을 시도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피닉스밸리의 중간관리 책임자인 쉬씨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집단생산(大生产队) 모델을 경험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적극성(积极性)을 끌어 올려 몰래 게으름 피우지(偷懒)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관리인 순씨도 집단농장 당시를 “한 솥 밥을 먹었다(吃大锅饭).”라고 표현하면서, “촌민들이 열심히 일하든 게으름을 피우든 같은 양의 식량을 배급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촌민들은 일하는 척만 했다.”고 회고했다. 대부분의 관리인들은 포도 생산 단지에서 촌민들을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구성하고 관리인들이 각 작업반을 감독하는 것은 집단농장의 생산대, 작업소조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저조한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농업에서 노동 감독에 대한 우려는 기업의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 사이에서도 팽배해 있다. 피닉스밸리 인근 마을의 촌서기인 종씨는 개인적으로 촌민들의 토지 140무를 임대하여 재배한 포도를 장위에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개인이 독립적으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기업에 공급하는 방식을 중국에서는 ‘큰 계약’이라는 뜻인 ‘다바오(大包)’라고 부른다. ‘다바오’의 포도는 대개 기업이 생산한 포도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당도가 낮아 주로 중저가 포도주 생산에 사용된다. 연구자가 종씨의 포도밭을 방문했을 때 그는 10여 명의 임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있었다. 종씨는 연구자와의 대화 중에도 포도밭 곶랑에 두 줄로 줄지어 가지치기 작업 중인 농민들을 한시도 쉬지 않고 감독하고 있었다. 종씨는 현재 규모가 자신이 감독할 수

있는 최대치이며 더 이상 규모가 확대된다면 노동 감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닉스밸리나 다른 포도주 회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촌민들도 100무 이상의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꺼린다. 계약 규모가 커질수록 계약농들이 더 많은 임노동자들을 고용해서 감독해야 하는데 100무를 초과할 경우 노동 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피닉스밸리와 약 100무의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장씨는 매년 7~8명의 임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면서 명절마다 선물이나 격려금을 주어 그들의 신임(信任)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자기 일처럼 장씨를 돕는다고 한다. 작은 규모의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촌민들도 농번기에 임노동자들을 고용할 때는 식사 대접을 잘 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적당히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키고 감독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털어 놓았다. 두 명의 부부가 효율적으로 도급 계약을 운영하기에는 약 20무 정도가 적당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20무 내외의 도급 계약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포도주국(局)에서는 기업가적인 농민을 양성하기 위해 300무 이상의 포도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정책까지 내놓았지만 노동 감독에 대한 농민들의 뿌리 깊은 우려로 인해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⁴⁾

촌민들 역시 포도주 기업이 도급 계약을 거치지 않고 관리인들이 촌민들을 직접 임노동자로 고용하여 감독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50대 초반 여성인 천씨는 자신이 10대 후반이었던 1980년대 초반 집단 생산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당시에 생산대장이 감독할 때는 대충 일하는 척하다가 생산대장이 사라지면 촌민들끼리 모여 휴식을 취하곤 했다고 멧쩍게 웃으며 말했다. 천씨는 기업의 관리인이 촌민들을 감독하면 그 당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며 그 근거로 한 한국 화훼업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90년대 초반 한국의 화훼업자가 천씨의 마을에

14) 300무 이상의 대규모 상업 농업에 대한 걸림돌로 노동 감독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토지 임대 문제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일반 농민이 300무 이상의 토지를 임대하려면 정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는 지방에서의 관시(关系)가 좋아야 가능한 일이다.

200무의 토지를 임차해서 촌민들을 고용하여 화훼단지를 조성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인 관리인이 촌민들의 태만한 노동에 대해 ‘눈 감아 주었고(睁个眼, 闭个眼)’ 결국 그 화훼업자는 5년 만에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촌민들은 그 한국인 업자가 중국 농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실패했으며, 피닉스밸리의 계약 재배 방식이 촌민들의 노동 동기 부여에 더 적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970년대 집단 농장의 실패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여전히 중국 농민들의 뇌리에 깊이 남아 있다. 집단 농장의 해체 이후, 기업형 농업은 대규모 농업 생산의 새로운 실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관리인의 감독 하에 촌민들이 집단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집단 농장의 부정적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반면에 1980년대 초반 시행되었던 농가생산도급책임제에 따른 토지 사용권 분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억들이 지배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개별 농가의 토지 사용권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촌민들이 자치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분배하고 운영하면서 평등성의 원칙을 정착시켰다. 실제 각 촌락마다 토지를 분배하는 방식이 촌민들의 합의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었고, ‘격동지(激动地)’라고 불리는 공동 소유지의 규모나 운영 방식도 다양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분배된 토지 소유권을 바탕으로 촌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상부상조의 사회적 관계가 활발했던 시기로 기억되기도 한다. C촌락의 전 촌장인 60대 중반의 바오씨는 당시 3~4가구의 촌민들끼리 파종이나 제초와 같은 농번기에 서로 돕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인정(人情)’이 넘쳤던 때라고 회상했다.

농가생산도급책임제는 다른 용어로 ‘포산도호(包产到户)’로 칭하기도 하는데, 그 뜻은 국가와의 도급 계약이 촌락 단위에서 개별 가구 단위로 이전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포산도호’는 농민들 입장에서 도급계약을 맡게 된다는 뜻으로 ‘승포(承包)’로 불리기도 한다.¹⁵⁾ 즉, 1980년대 초반까지 촌락 단위에서 집단농장을 통해 국가의 할당량에 따라 곡물을 공출했다가, 그

15) 중국어로 ‘承’은 ‘맡다’, ‘包’는 ‘계약, 혹은 도급계약’을 뜻한다.

이후에는 개별 가구가 곡물 할당량을 충족시키고 잉여 생산물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의 공납 할당량은 폐지되었지만, ‘승포’의 개념은 촌락 단위에서 유지되어 왔다. 예컨대, 촌락의 공동 소유지를 경매를 통해 가장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촌민들에게 임대해 주는 데, 이 경우에도 촌락 집체와 촌민들 사이의 도급 계약이라는 뜻에서 ‘승포’라고 한다.

포도주 회사와 촌민들 간의 도급생산 계약은 많은 면에서 1980년대 시행했던 농가생산도급책임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촌락 집체가 도급생산 계약의 분배와 운영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계약농 선정 및 도급계약 농지 결정에 있어서 추천을 통해 평등성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공납 할당량을 충족한 후의 잉여 생산물을 취득했던 것과 유사하게, 포도주 회사에 일정한 포도 생산량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단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곡물 생산의 품질에 대한 조건이 없었지만 포도주 회사에 납품하는 포도는 당도 등 상품 품질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다는 점이다. 피닉스밸리의 계약농들 역시 포도주 회사와의 도급생산 계약이 과거의 농가생산도급책임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했다. 촌민들의 표현을 빌자면, “국가가 차지했던 자리에 기업이 들어왔을 뿐이다.” 촌민들은 포도주 회사와의 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승포(承包)’라 부르며 회사에서 계약농들에게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승포비(承包費)’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 집단농장의 비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기억은 기업의 관리자들과 촌민들 모두에게 대규모 상품 농업에 있어서 집단적 노동 감독에 대한 극심한 기피와 우려를 야기했으며, 반면에 긍정적인 경험을 했던 1980년대 초반 농업생산도급책임제의 계약재배 방식이 기업형 농업의 생산방식으로 차용되고 있다. 즉, 기업의 대규모 농업에서 생산량 할당과 인센티브를 통해 농민들의 적극적인 노동 동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농업 생산성과 노동 감독의 책임을 계약의 방식으로 촌민들에게 배분함으로써 대규모 경작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것이다. 고급 포도주 생산

을 지향하는 기업형 농업이 과거 집단생산의 부정적 기억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국가가 시행했던 도급계약 방식과 절충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은 현재 중국 농업이 처해 있는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포도주 기업 관리인들의 계도적 태도와 담론

중국 기업형 농업의 탈사회주의적 특성은 포도주 회사의 관리인들이 촌민들에 대해 보이는 계도적이고 온정적인 태도와 담론에서도 나타난다. 연구자가 피닉스밸리의 계약재배 방식의 단점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때, 관리자인 푸씨는 계약 농업이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촌민들에게 농업 경영의 경험을 쌓게 하여 ‘기업가적 정신’과 ‘상품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자가 만난 다른 포도주 기업의 관리자들도 기업이 ‘영도(领导)’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촌민들이 ‘낡은 사상’에서 벗어나 상품 농업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농민들에 대한 계도적인 시각은 지방정부의 관료들에게도 팽배하게 나타났다. 연구자가 면담한 엔타이 포도주국(局)의 직원들은 중국 포도주 산업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반 농민들(老百姓)의 소양[素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중국 농민들이 계획경제 시대에 양적인 생산량을 높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농업 규모를 확대하고 작물의 상품성을 높이는 기업형 농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닉스밸리 관리인들의 계도적인 태도는 수확기의 포도 당도와 관련된 촌민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포도 수확은 대개 9월 초~중순에 이루어지는데 관리자들은 포도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수확을 늦추려고 하고 계약농들은 수확이 늦어질수록 물러져서 버리는 포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확을 하고 싶어 한다. 기업에 의해 포도 수확이 늦춰질 때면 계약농들은 “조급하다(着急)”, “열 받는다(上火)”

라며 불안한 심정을 표출하고, 때로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인들에게 항의하기도 한다. 촌민들은 기업에서 당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올려준다면 수확이 늦춰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의 인센티브로는 수확량 감소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불만과 관련하여 관리자 푸씨는 연구자에게 관리 상태가 크게 차이나는 두 계약농의 포도밭을 보여 주면서 수확 시기에 따른 수확량 감소는 개별 계약농의 관리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렇듯 포도주 회사의 관리인들은 촌민들과 갈등 및 긴장 관계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촌민들과의 ‘화합(和諧)’과 ‘협조(协调)’ 관계를 강조한다. 기업이 계약재배 토지의 배분 및 운영에 대해 촌락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도 촌민들이 유지해 온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확기의 포도 당도라든지 다른 노동 감독에 대해 촌민들의 강한 항의가 있으면 관리인들은 그런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비료나 농약 사용 등에 있어서 기업의 엄격한 규정을 계약농이 위반했을 때 관리인들이 눈감아 주고 넘어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인근의 사과 농장에서 일손이 부족해 임노동 가격이 상승하자 포도 생산 단지의 작업 시기를 조절하여 계약농들이 사과 농장에서 부업을 하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다. ‘승조반포’ 모델의 상호 계약 의무에 의해 기업이 일방적으로 생산 계약을 해지하고 외부의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농들이 태업의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도록 그들의 적극적인 노동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닉스밸리의 관리인들도 이 지역의 농민 출신이며 촌민들과 사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체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농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닉스밸리 관리인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그들이 촌민들에 대해 보이는 제도적이고 온정적인 태도와 언어의 맥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피닉스밸리를 비롯한 많은 포도주 회사의 관리인들은 지역 농민 출신으로서 과거 정부의 농업기술 관련 기관들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후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보급 사업에 참여했던 기술원 출신들이다. 피닉스밸리의 경우 총

9명의 기술관리인들 중 7명이 ‘원예장(园艺场)’이라는 지역의 과수농업기술 보급 기관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중등 교육을 받은 후 1980년대 말에 설립된 원예장에서 농업 기술원으로 교육받았고 연령은 40대 후반에서 50대의 중장년층이다. 반면 나머지 2명은 농업대학을 졸업한 30대 기술원이다. 1996년 원예장은 민영화되어 기술원들을 해직시켰고, 1990년대 말에 들어서기 시작한 포도주 회사들에서 그들을 관리인으로 채용했다. 이들은 이전에 농민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과 촌민 사이에서 감독과 중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원예장에서 일했던 관리인들은 “대학 졸업한 기술자들이 이론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농민들과 교류(接觸)하는 데에 있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더 뛰어나다.”며 자신들의 강점을 내세웠다. 실제 연구자가 만났던 한 농업대학 출신의 젊은 관리인은 현장에서 농민들을 상대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고, 몇 년 후 엔타이 시내에 위치한 본사 기술개발 부서로 이직하기도 했다. 원예장 출신의 관리인들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포도주 기업이 촌민들에게 가져오는 혜택을 강조하면서, 기업형 농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침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포도주 기업이 통일적 관리(統一管理)와 규모 경영(規模經營)을 실현하고 기술과 농업을 결합하여(工农一体), 시장 판로(市場銷售)와 농업 과학(农业科学)을 결합(結合)하는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성 용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했다.

피닉스밸리 관리인들의 이 같은 계도적 태도에 대한 계약농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포도주 회사의 관리인들을 통해 과수 재배의 기술을 전수받아 도움이 되었다는 계약농들도 있었지만, 다수의 계약농들은 관리인들의 관리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중 40대 후반의 장씨는 평소 농업 기술과 관련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잡지들을 접하면서 과수 농업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편이었다. 장씨에 따르면, 관리인들은 ‘통일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모든 계약농이 동일한 시기에 같은 양의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에 각 계약농의 과수 상태에 따라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조절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¹⁶⁾ 장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40무의 토양과 과수 상태에 대해서는 관리인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정부 관리들과 기업 관리인들이 포도의 품질에 대해 촌민들의 ‘상품 의식 부족’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계약농들은 기업에서 당도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지급한다면 포도 생산량을 줄여서 당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이 지역의 농업 임노동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고려하면 피닉스벨리의 관리비는 거의 오르지 않아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¹⁷⁾ 앞서 언급했던 중국농업과학원 왕중위에 교수 역시 중국 포도 품질의 문제는 농민들의 ‘소양(素质)’보다는 포도 생산의 기술적 향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교수는 포도주 회사의 포도 생산에 있어서 과도한 질소 비료 사용으로 인해 포도의 생장은 촉진되었지만 수확기에 포도가 물러지면서 당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는 토양 분석, 점목제배, 유기질 비료 사용 등 기술적인 방법들을 통해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억제하면서도 포도의 당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 농민은 ‘후진적인 집단’으로 규정되고 ‘교육’받고 ‘계몽’되어야 할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다(Cohen 1993: 154-155). 또한 중국의 현대사에서도 집단 농장, 농가생산도급책임제, 그리고 현재의 기업형 농업에 이르기까지 농민들의 ‘의식’과 ‘정신’을 개조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실험들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포도주 산업에서 국영 대기업들의 시장 독점, 계약농들에 대한 보상, 기술적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리인들은 ‘늙은 사고방식(老思想)’에 젖

16) 관리인들이 비료와 농약을 계약농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같은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적 관리’라는 기업형 농업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약농들이 비료와 농약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17) 연구자가 논문 예비조사를 위해 연구 지역을 처음 방문하였던 2009년에 이 지역의 농업 임노동 일당은 8시간 기준으로 50~60위안이었는데, 본 연구를 진행했던 2014년에는 100~120위안으로 5년 동안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어 있는 농민들에게 ‘상품 의식’과 ‘기업가적 정신’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개발 담론을 답습하고 있다.

6. 결론

계약농업은 주로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 등의 지역에서 생계형 소농들을 상업형 농업 체계로 유인하는 과도기적인 단계로 알려져 왔다. 계약농업의 장점으로는 농업 기업이 농민들에게 기술적 지원과 시장 판로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수입을 높여준다는 점이 제시된다. 반면 계약농업을 통해 기업이 농민들의 토지와 노동에 대해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불평등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농업기업이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부농을 선호하기 때문에, 계약농업으로 인해 농촌 사회의 계층 분화와 소농의 이농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Little and Watts 1994; Raynolds 2000; Singh 2002; Zhang 2012).

중국 포도주 기업의 경우에도 20년 이상의 토지 임대 계약으로 인해 촌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생산 계약도 지역의 임금 상승과 비교할 때 촌민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뚜렷하다. 포도주 기업의 계약 농업을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self-responsible) 기업가적이며(self-enterprising) 자기 통치를 하도록(self-governing)” 유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 양식의 확산으로 볼 만한 여지도 없지 않다(Rose 1999). 또한 중국의 경우 개인의 이익 추구하고 자기 통치(self-governance)를 위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 권위주의적 국가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다(Zhang and Ong 2008).

하지만 산동의 포도주 기업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의 기업협 농업을 신자유주의적 질서의 확대만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지점들이 존재한다. 중국에서 포도주 기업의 계약농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 하에 농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포도주 기업의 도입 과정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윤 추구의 목적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촌락 집체와의 조화로운 관계, 촌민들의 의식 향상 등의 정치적 정당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 기업과의 계약에 대해 촌민들이 “이전에 국가와 계약을 맺었던 것을 지금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일 뿐 비슷한 방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듯이, 중국의 기업형 농업은 1980년대의 농가생산도급책임제라는 정부 정책의 논리와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포도주 기업의 관리인들 중 다수가 지방정부의 농업기술 보급 기관에서 근무했었고 정부의 농업개발 담론을 재생산하면서 촌민들에게 계도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농업 기업이 국가처럼 행동(acting like a state)하는 중국적 특색을 드러낸다. 특히 촌락의 집체적 토지 소유라는 탈사회주의적 조건으로 인해 토지 임대와 생산 계약의 주체가 촌락 집체가 되었고 생산 계약의 분배에 있어서 자치적 의사 결정과 평등성의 원칙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포도주 기업과 촌민들 사이의 생산 계약도 집단농장의 부정적 기억에 대한 반작용과 1980년대 농가생산도급책임제의 긍정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정부의 농업 정책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중국의 ‘승조반포’라는 독특한 기업형 농업의 형태에는 한편으로 집단농장에 대한 사회주의적 경험에 대한 반작용과, 다른 한편으로는 촌락 집체의 집단적 토지 소유라는 사회주의의 유산이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농촌에서 농업 기업의 자본주의적 확장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시대에 대한 경험 및 기억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새로운 합리성을 도출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사회주의적 유산을 선택적으로 재조합하는 시대적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의 계약 농업과 비교해 볼 때, 중국의 경우 농민의 집체적 토지 소유권과 자치적 의사결정권이 부분적으로나마 유지되고 있으며 촌민의 계급 분화, 토지로부터의 유리(流離), 촌락 조직의 파편화 현상도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자본주의로 이행해 가는 과도기적 시기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농업에서의 자본 확대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80

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촌락 단위의 집체적 토지 소유의 전통은 이미 촌민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 매립(embedded)되어 쉽게 양도될 수 없는(inalienable) 공동 재산에 대한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중국 농촌에서 기업형 농업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촌락의 집체적 토지 소유 관계의 변화 양상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6년 5월 31일, 논문심사일: 2016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10일

참고문헌

김기호

2014 “산동 포도주 산업의 새로운 도전,” 정근식·신혜선 편, 『산동에서 떠오르는 동아시아를 보다』, 진인진, pp. 153-170.

김수한

2012 “중국 집체토지 권리 변화의 정치경제: 이원적 권리체계 변용과정을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13(2): 81-120.

김인

2006 “중국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亞太 쟁점과 연구』 1(2): 23-43.

장호준

201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농촌 토지제도 개혁: 토지도급경영권 이전(流转) 기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52: 561-587.

Anagnost, Ann

2004 “The Corporeal Politics of Quality (Suzhi),” *Public Culture* 16(2): 189-208.

Blake, C. Fred

2011 *Burning Money: The Material Spirit of the Chinese Lifeworl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Brandstätter, Susanne

2003 “The Moral Economy of Kinship and Property in Southern China,” in C.

M. Hann, ed., *The Postsocialist Agrarian Question: Property Relations and the Rural Condition*, Münster: LIT Verlag, pp. 419-440.

Chu, Julie Y.

2010 *Cosmologies of Credit: Transnational Mobility and the Politics of Destination in Chin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Cohen, Myron L.

1993 "Cultural and Political Inventions in Modern China: The Case of the Chinese 'Peasant,'" *Daedalus* 122(2): 151-170.

Davies, David

2007 "Visible Zhiqing: The Visual Culture of Nostalgia Among China's Zhiqing Generation," in Guobin Yang and Ching Kwan Lee, eds., *Re-envisioning the Chinese Revolu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66-192.

Eyferth, Jacob, Peter Ho, and Eduard Vermeer(eds.)

2004 *Rural Development in Transitional China: The New Agriculture*, London: Frank Cass Publishers.

Farquhar, Judith, and Qicheng Zhang

2012 *Ten Thousand Things: Nurturing Life in Contemporary Beijing*, Cambridge and London: MIT Press.

Feuchtwang, Stephan

2010 *The Anthropology of Religion, Charisma, and Ghosts: Chinese Lessons for Adequate Theory*, Berlin: Walter de Gruyter.

Ganti, Tejaswini

2014 "Neoliberalism,"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3(1): 89-104.

Godley, Michael R.

1986 "Bacchus in the East: The Chinese Grape Wine Industry, 1892-1938," *Business History Review* 60(3): 383-409.

Guo, Xiaolin.

2001 "Land Expropriation and Rural Conflicts in China," *The China Quarterly* 166: 422-439.

Hann, Chris M.(ed.)

2003 *The Postsocialist Agrarian Question: Property Relations and the Rural Condition*, Münster: LIT Verlag.

- Harvey, David.
2007 *A Brief History of Neoliber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 Peter
2001 “Who Owns China’s Land? Policies, Property Rights and Deliberate Institutional Ambiguity,” *The China Quarterly* 166: 394-421.
- Ho, Samuel P. S., and George C. S. Lin
2003 “Emerging Land Markets in Rural and Urban China: Policies and Practices,” *The China Quarterly* 175: 681-707.
- Humphrey, Caroline
1998 *Marx Went Away--but Karl Stayed Behin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Jenster, Per and Yiting Cheng
2008 “Dragon Wine: Developments in the Chinese Wine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Wine Business Research* 20(3): 244-259.
- Jing, Jun
1998 *The Temple of Memories: History, Power, and Morality in a Chinese Vill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Kipnis, Andrew
2006 “Suzhi: A Keyword Approach,” *The China Quarterly* 186: 295-313.
- Kjellgren, Björn
2004 “Drunken Modernity: Wine in China,” *Anthropology of Food* 3 (December).
- Kung, James Kai-sing and Shouying Liu
1997 “Farmers’ Preferences Regarding Ownership and Land Tenure in Post-Mao China: Unexpected Evidence from Eight Counties,” *The China Journal* 38: 33 - 63.
- Little, Peter D. and Michael J. Watts
1994 *Living Under Contract: Contract Farming and Agrarian Transformation in Sub-Saharan Africa*,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Mueggler, Erik
2001 *The Age of Wild Ghosts: Memory, Violence, and Place in Southwe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onini, Donald M.
2008 “Is China Becoming Neoliberal?,” *Critique of Anthropology* 28(2): 145-176.

OECD

2005 “Agrarian Policy Reform in China,” *Policy Brief* (October).

Oi, Jean and Andrew G. Walder

1999 *Property Rights and Economic Reform in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Pieke, Frank N.

2009 *The Good Communist: Elite Training and State Building in Today's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ynolds, Laura

2000 “Negotiating Contract Farming in the Dominican Republic,” *Human Organization* 59(4): 441-451.

Rofel, Lisa

2007 *Desiring China: Experiments in Neoliberalism, Sexuality, and Public Cultur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Rose, Nikolas

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zelle, Scott, Daniel Sumner, and Jikun Huang

2006 *Wine in China: Final Report to the California Association of Wine Grower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Agricultural Issues Center and UC Davis.

Singh, Sukhpal

2002 “Contracting Out Solutions: Political Economy of Contract Farming in the Indian Punjab,” *World Development* 30(9): 1621-1638.

Swinnen, Johan F. M. and Scott Rozelle

2006 *From Marx and Mao to the Market: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Agricultural Tran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Verdery, Katherine

2003 *The Vanishing Hectare: Property and Value in Postsocialist Transylvan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Wang, Weiguo

2005 “Land Use Rights: Legal Perspectives and Pitfalls for Land Reform,” in Peter Ho, ed., *Developmental Dilemmas: Land Reform and Institutional Change in Chin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55-78.

Yan, Hairong

- 2003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Neohumanism: Organizing Suzhi/Value Flow through Labor Recruitment Networks," *Cultural Anthropology* 18(4): 493-523.

Yan, Yunxiang

- 2009a "The Good Samaritan's New Trouble: A Study of the Changing Moral Landscape in Contemporary China," *Social Anthropology* 17(1): 9-24.
- 2009b. *The Individualization of Chinese Society*, London: Bloomsbury Academic.

Yang, Guobin

- 2003 "China's Zhiqing Generation Nostalgia, Identity, and Cultural Resistance in the 1990s," *Modern China* 29(3): 267-296.

Yang, Mayfair Mei-hui

- 1994 *Gifts, Favors, and Banquets: The Art of Social Relationships in Chin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2000 "Putting Global Capitalism in Its Place: Economic Hybridity, Bataille, and Ritual Expenditure," *Current Anthropology* 41(4): 477-509.
- 2004 "Spatial Struggles: Postcolonial Complex, State Disenchantment, and Popular Reappropriation of Space in Rural Southeast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3(3): 719-755.

Yu, Xiaohua, and Guoqing Zhao

- 2009 "Chinese Agricultural Development in 30 Years: A Literature Review," *Frontiers of Economics in China* 4(4): 633-648.

Zhang, Li

- 2006 "Contesting Spatial Modernity in Late Socialist China," *Current Anthropology* 47(3): 461-484.

Zhang, Li and Aihwa Ong(eds.)

- 2008 *Privatizing China: Socialism from Afa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Zhang, Qian Forrest

- 2012 "The Political Economy of Contract Farming in China's Agrarian Transition," *Journal of Agrarian Change* 12(4): 460-483.

Zhang, Qian Forrest and John A. Donaldson

- 2008 "The Rise of Agrarian Capit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gricultural Modernization, Agribusiness and Collective Land Rights,"

The China Journal 60: 25-47.

Zhu, Keliang and Roy Prosterman

2007 “Securing Land Rights for Chinese Farmers: A Leap Forward for Stability and Growth,” *Development Policy Analysis* 3: 1-17.

〈Key concepts〉: neoliberalism, agribusiness, reverse rent through inverse contract, wine, house responsibility system, China, village

Reflection on Neoliberal Perspective in Interpreting Social Changes in China:

A Case Study of Wine Industry in Shandong Province

Kim, Kiho*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limitations of neoliberal perspectives in interpreting social changes in China through a case study of the wine industry in Shandong Province. My ethnographic data demonstrate that new capitalist elements are introduced to Chinese villages in the continuum between the socialist past and post-socialist present. Since the 1990s, the wine industry in China has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 as a way to expedite 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Wine companies in Shandong, where I conducted 18-month ethnographic research, adopt a contract model, called ‘reverse rent through inverse contract.’ According to this contract model, a wine company leases farmland from the village collective, and in return, makes production contracts with villagers for wine grapes. This unique institution is an outcome that reflects the abhorrent memory of collectivist production in the 1970s on the one hand, and the positive experience of the

* Ph.D.,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Chicago

HRS(House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1980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socialist legacy of collective land ownership still remains, the village collective maintains an autonomous decision-making in distributing a wine company's production contracts among villag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egalitarianism. In this sense, contract farming in China is limited in accelerating social stratification between the rich and poor farmers, and alienating villagers from farmland.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agribusiness in rural China cannot be interpreted merely as the expansion of neoliberal order, but should be understood as the process of forming a transitional rationality in the interplay of memories and experiences of the socialist past.